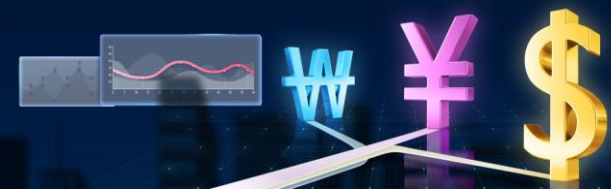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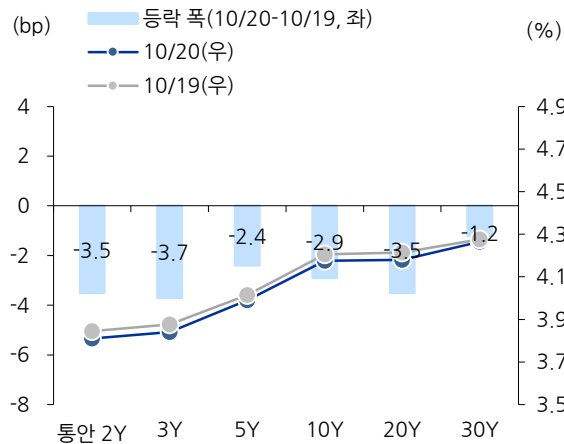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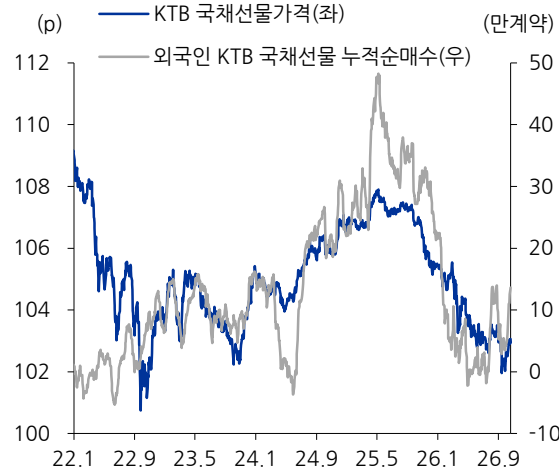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10/20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40%	-3.7	-1.7	88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176%	-2.9	-5.3	79.1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33.6	32.8	37.2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3.06	14.0	8.0	-238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06.57	34.0	53.0	-635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781%	0.5	-1.2	130.9
	미국채 10년물	5.112%	-2.9	-9.8	94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3.2	36.6	41.8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412%	-6.1	-5.9	55.7
	호주국채 10년물	5.252%	2.1	-3.6	49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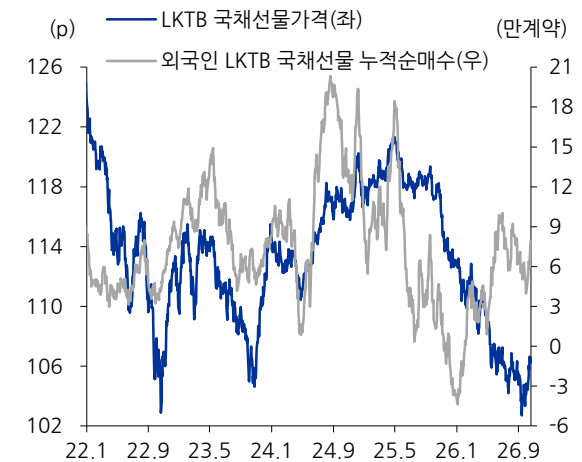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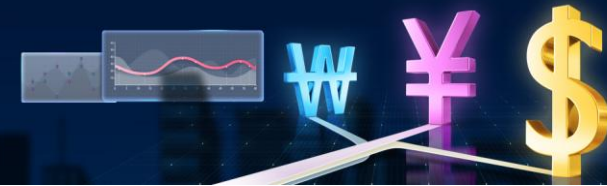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반도체 중심 주가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지속.
- 간밤 프랑스 대규모 시위 등으로 유럽, 미국 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금리도 상승 출발, 이후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 금리 소폭 하락,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라 금리 하락 전환했음.
- 유가 부진과 10월 금통위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 주가 하락폭 확대되며 금리 하락폭 역시 연동되며 확대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장단기 방향성 엇갈리며 혼조 마감.
- 개장 초 금리 하락 출발. 주가 부진과 유가 하락, 미국 주택지표 부진에서 확인된 고금리의 부작용 등에 따른 영향. 미국 9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대비 -7.3%를 기록하며 예상치(-0.5%)를 크게 하회했음. 최근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바로 확인된 것으로 평가.
- 오후 금리 방향성은 기술주에 연동되며 움직임. 기술주 반등으로 금리도 상승 전환했으나 이내 기술주 반등폭 약해지며 금리 상승폭 일부 반납 마감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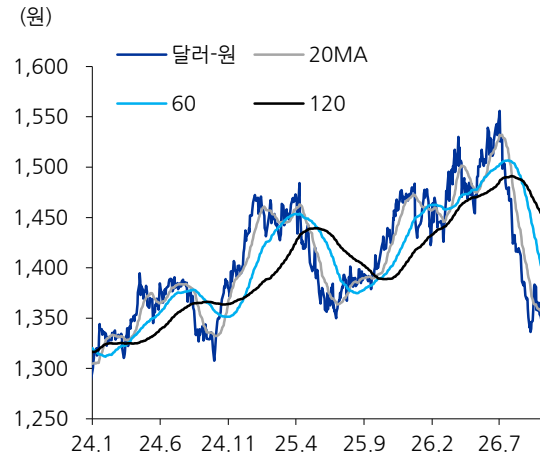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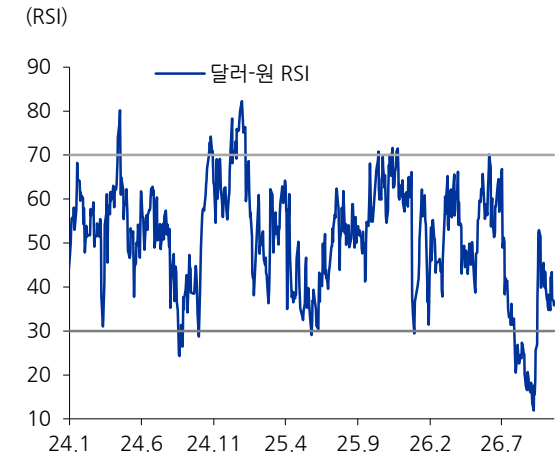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10/20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28.10	-0.2%	-1.3%	-7.7%
	달러지수	101.70	-0.3%	-0.5%	3.5%
	달러/유로	1.12	0.2%	0.3%	-4.3%
	위안/달러(역외)	6.67	-0.1%	-0.3%	-4.4%
	엔/달러	158.20	-0.2%	-0.1%	1.0%
	달러/파운드	1.34	0.6%	1.0%	-0.6%
	헤알/달러	5.03	-0.1%	0.2%	-8.9%
상품	WTI 근월물(\$)	101.79	-1.8%	8.1%	77.3%
	금 현물(\$)	4,124.16	-0.4%	-0.9%	-4.5%
	비트코인(\$)	82,570	0.9%	-1.0%	-6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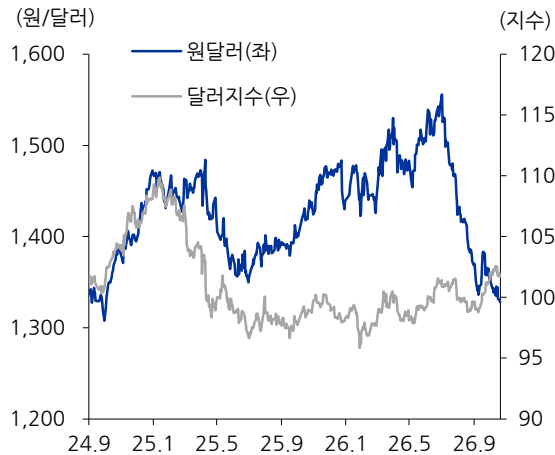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위험회피 확대에도 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2.20원 하락한 1,328.10원 마감(야간 1,326.00원).
- 장초부터 수출업체 네고물량 대거 출회되며 원화 강세를 견인.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확대되며 추가 환율 하락은 제한됨.
- 9월 FOMC 이후 달러인덱스가 1.4% 상승했음에도 원화는 달러 대비 3.7% 강세를 보이며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강했음.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경상흑자로 올해와 내년 GDP 대비 경상흑자는 20% 내외가 예상됨.
- 최근 여러 대외 악재에 외국인은 지난 주에만 코스피는 11.4조원 순매도. 그러나 악재에도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원달러 하락 기대가 강하다는 방증임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미국과 이란 대화 기대감 속 하락 (DXY -0.3%).
-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마-이란 타협안을 양측에 제시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달러 하락을 주도. 이란을 방문한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타협안을 이란에 전달했으며, 미국의 승인과 이란의 사전 승인을 확보했다고 전해짐.
- 다만 뉴욕장 기술주 반등 속 위험회피 심리 확산하며 달러 하락폭은 축소됨.